

# 새싹편지 4

## ■ 그냥 수다

당신은 현재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더는 이 글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현재 불행하십니까?  
 불행하지도 않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족에 속합니다.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한 것 같지도 않은 아무  
 대답도 없는 당신을 위해 이 글을 바칩니다.

열등감 없이는 성취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배고픔을 모르고선 밥 한 공기 소중함을 알 수  
 없습니다.  
 불행을 알아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당신.  
 불행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행복해지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을 위해 불행의 씨앗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 ■ 4월 행사 소식

### 대전 교육 과학 연구원 견학



4월 18일 대전 교육 과학 연구원에서 우송대 유아교육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아 과학 교육 수업이 열렸다.

이번 견학은 미래의 교사가 될 학생들에게 유아를 능동적 학습자로 키우기 위한 과학실습이다.

이 수업을 받은 한 학생은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할 것 같으며 교사가 된다면 과학 교육을 통해 유아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고 싶다는 평을 남겨주었다.

## 중간고사



2012년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중간고사가 치러졌다. 해본 사람이나 안 해본 사람 모두 긴장하게 하는 시험을 앞두고 여유로운 학생과 들떠 보이는 학생 등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험이 시작되고 경험이 많은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과 달리 1학년들은 모여서 답안을 맞춰 보며 함성과 탄식을 쏟아내는 재미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 중 한 학생은 입시에 갇혀 있다 해방된 듯하여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즐기다 보니 마음이 느슨해져 벼락치기로 화끈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됐다며 이 또한 신입생만의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남겼다. 그 외에도 도서관 앞에서 나눠주는 간식을 여유로운 자세로 먹는 시험의 달인인 듯한 학생도 만날 수 있었다. 경험에 의하면 얼마 후 우리는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받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기말고사는 벼락치기가 아닌 미리 계획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을 것이라 감히 예상해본다.



인터뷰

< 새내기 두 남자 강문배와 전우혁 >



유아교육과의 꽃이 된 남자 강문배와 전우혁

꽃들이 활짝 피기 전의 하늘이 쾌청하고 바람이 좋았던 2012년 4월 6일 금요일, 수업을 마치고 유아교육과의 꽃인 남자 신입생들을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미 엠티에서 그들의 넉치는 끼를 발견했지만, 그것만으로 아쉬운 마음이 들어 더 알아보고 싶었다. 순수함과 당당함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스무 살 두 청년을 만날 생각에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몇 분 후 말끔하게 차려입고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하며 강문배가 카페에 들어섰다. 손에 캐리어가 있어 물었더니 집에 갈 예정이란다. 미루고 와줘서 조금 미안하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데면데면해하고 있는데 전우혁이 다가와 씩씩하게 인사했다.

Q. 만나서 반가워요. 우선 자기소개해주세요.

강문배 : 저는 우송대학교 12학번 유아교육과 까도남을 맡고 있고 1학년 남자 중에서 3번째로 잘생긴 강문배입니다. (진지) 저는 성남에서 와서 현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우혁 : 저는 유아교육과 1학년 남자 중에서 2번째로 잘 생겼고 대전에 사는 93년생 전우혁입니다.

Q. 여자들이 정말 많은 과인데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강 : 이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부모님의 영향도 받았고, 유아들에게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하고 싶은 계획들을 세워뒀어요. 제가 세운 계획을 지키기 위해 유아교육과에 오게 되었어요.

전 : 일단 저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며 어렸을 때의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고, 유아교육에서 남자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아교육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Q.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으로서 어땠는지 궁금해요.

강 : 남자 선배님들이 맛있는 밥도 많이 사주시고, 음료수도 사주셔서 좋아요.

전 : 칙칙한 남자들만 있는 것 보다 재미있습니다. 꽃밭에서 논다, 아니 밭에서 논다? (웃음)

Q. 대학생할 동안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강 : 2급 정교사 자격증 받고 졸업하기. 그리고 우리 과 친구들과 많이 놀고 싶어요.

전 : 장학금 타고 싶고 CC도 해보고 싶습니다. 무리수인가?(폭소) 운명적 만남도 하고 싶습니다.

(진지)

Q. 지난달에 MT를 다녀왔는데 어땠어요? 서로의 무대에 대해 평도 해주세요.

강 : 창피해요. (쓱스러워 하며) 지나가는 선배님들이 저를 보고 다 웃으세요. 선배님 중에 다른 과 선배님들과 같이 가면서 재가 “예뵤공주”라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저를 강문배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 재미있었습니다. (웃음) 그럴지만 트러블메이커를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지만 문배한테는 따라가지 못하죠.

트러블 메이커를 했다면 따라갔을 텐데…….

Q. 남학생이 단둘뿐인데 서로 다른 반이라 아쉬울 것 같아요.

강 : A반 애들이 다 남자처럼 느껴져서 서운하지 않고 엄청나게 좋아요. (진지) 그런데 저한테 집 중당하는 건 싫어요. 그리고 아동발달 시간에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남자가 저 혼자여서 민망했던 적이 있어요.

전 : 같은 반이 아니라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애들이랑 친해져서 그렇게 서운한 점은 없었습니다.

Q.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강 : 아직은 없어요.

전 : 2학년 A반 선배님들 수업에 저희 반인지 알고 멋있는 워킹으로 들어갔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정말 민망하고 창피했습니다.

Q. 현재 여자 친구가 있나요?

강 : 전 있어요.

전 : 전 없습니다.

Q. 이상형이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으로 뽑자면 누구인가요?

강 : 숏컷을 좋아해요. 그리고 저희 엄마의 1/10 정도 닮은 여자? 그 정도면 평생 살 거 같아요. 연예인으로는 티아라의 소연이나 이민정이에요.

전 : 갈색 긴 생머리에 착하고 지적인 여자가 이상형이에요. 연예인으로는 이연희?

Q. 롤 모델이 있나요?

강 : 저는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겸소하셔서 기

름값 외에는 따로 돈 쓰시는 것도 거의 없으세요. 부모님께서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데 아들은 잡으셔도 어머니께는 늘 쳐주세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시고, 경기 광주시 어린이집 회장을 맡고 계세요. 다양한 일을 하시면서 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전 : 아직은 없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강 : 유치원 원장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고 좋은 유치원에 취직해 야간 대학원에 다니며 석사를 따고, 박사 학위도 취득하고 싶어요.

전 : 저는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토익공부도 열심히 하고, 졸업 후에는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병설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Q. 유아교육과 신입생 대표로 인터뷰를 한 기분이 어때요?

강 : “학과에서도 나의 능력, 까도남을 알아주는구나!” 느꼈어요.

전 : 재미있었고 2번째 잘 생긴 남자로서 좋았습니다.

첫 인터뷰여서 긴장이 났었는데 열정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는 강문배, 전우혁 두 후배 덕분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 이날의 얘기처럼 그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가며 유쾌한 인생을 그려나가길 기대해본다.

## ■ 습관

글쓰기에서는 행동의 패턴을 플롯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 부른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좀 더 부지런한 성격이었다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할 때가 있다. 1학기 중간고사까지 몇 주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필자를 포함해 ‘미리미리 공부해둘걸’ 하고 후회를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은 자신이 가진 행동패턴, 즉 습관을 돌아보게 한다. 만약 바뀌었으면 하는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이 와도 오늘을 아쉬워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생활수칙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 1. 습관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생각해보기

항상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멀리 볼 것 없이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된다. 밤마다 시험공부와 과제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학생들이 갑자기 이른 새벽에 일어나려고 마음먹는다면 실천에 옮기기가 절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일찍 일어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아마 온종일 피곤함에 절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무리해서 일찍 일어나려 하기보다는 짧게는 3~4일, 길게는 몇 주에 걸쳐 기상 시간을

조금씩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

### 2.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기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기가 더 쉽다. 주위에서 함께 실천에 옮길 동반자를 구해 함께한다. 하기 싫어지거나 잊어버려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끌려서라도 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공부하려 마음 먹고 책상 앞에 앉는 순간 졸게 되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우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친구에게 깨워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알람을 꼭 맞춰놔야 한다.

### 3. 자주 환기하기

원하는 것을 종이에 써서 책상이나 서랍, 지갑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인다.

작심일일 계획표를 적어 책상 앞에 붙여둬라. 또 주위 사람들에게 계획을 알리고 점검해 주기를 부탁한다.

### 4. 뇌에 이야기하기

우리의 뇌는 원하는 바를 입력시켜 놓으면 그대로 이루어 하는 경향이 있다. 바꾸고 싶은 습관이 뇌세포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틈날 때마다 정성스럽게 되풀이한다.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내 몸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체중을 유지해줄 만큼만 먹는다.” 하는 식으로 계속 뇌에 이야기한다. 좋은 성적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뇌에 말을 걸어주자. “내 머리는 공부한 만큼 기억한다.”

이미지 트레이닝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5. 일지 쓰기

하루 일과 중 습관을 바꾸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과를 일지에 적거나 달력에 표시한다. 일지에는 습관 하나를 바꾸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을 간단하게 기록한다. 잘 지키지 못했다면 반성을 통해 다음날에는 자제할 수 있고, 온종일 잘 지켰다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훌륭한 자극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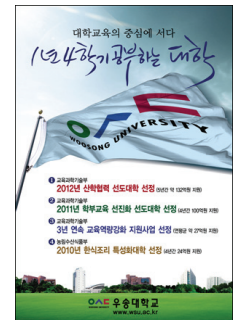
1주일, 한 달 기간을 정해 잘 지켜졌다면 나에게 선물을 주자. 스스로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책 D 하지는 '습관의 힘'이라는 저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습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그 만디노의 말을 인용해 "진실로,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단지 그들의 습관에 있다. 좋은 습관은 모든 성공의 열쇠이다. 나쁜 습관은 실패로 가는 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제1의 법칙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원동력이다. 내 삶을 나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멋지게 디자인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면, 그러한 자신의 삶에 적합한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습관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의 시간을 가져 보자.

앞서가는 우송인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송대가 2011년 “교양과정 7+1+7 블록제, 신입생 해외 유학 Step by Step”란 타이틀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에 선정된 데 이어 2012년에는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재를 양성해내고 지방대의 단점인 취업난을 해결해보고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열 잔 마셔야 3,000원 쿠폰 한 장 얻지만, 정보만 알면 해외여행에 유학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세요.”



지난 한 해 ACE 사업은 evening school, step by step 프로그램, 내외국인 학생 간 멘토링제 운영,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학생 중 일부는 이후 다양한 대회에 참가해 역량을 키우고, 장학금과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업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2차년도 사업 혜택의 주인공은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1.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글로벌 인재 창출을 주요 사업으로 여기는 학교 방침에 따라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모의 UN, 선도대학 학생 토론 발표회 참가, Woosong Herald 발행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Tip) 영어 공부 정말 중요하네요. 우송대는 공부하는 학생에게만 투자합니다. 공부하세요.

2. ACE 노트

각 학생에게 에이스라는 노트를 나눠주고 제출하여 잘 쓴 학생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Tip) 학교에서 나눠주는 에이스 노트, 혹시 아무 생각 없이 버리셨나요? 노트를 잘 작성한 학생들은 공부도 체계적으로 하고 시상식도 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2차년도에는 열심히 작성하여 일석이조 혜택에 한 번 도전해 봅시다!

내번호	나인생의 미인Key Word	이름(성/이름)	학번
1	성공	연제나	100%
2	열정	주연지연	100%
3	열정	주연지연	100%
4	열정	주연지연	100%
5	열정	주연지연	100%
6	열정	주연지연	100%
7	열정	주연지연	100%
8	열정	주연지연	100%
9	열정	주연지연	100%
10	열정	주연지연	100%

3. 내외국인 학생 간 멘토링제 운영

2011년 8월부터 모집공고를 하여 12년 1월 중순까지 진행된 외국인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팀별로 진행되었으며 활동 후 전시회도 열어 그저 버려지는 기회가 아닌 결과물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Tip) 글로벌한 우송대학교에 와서 외국인 선생님 외 다른 외국인과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글로벌 우송에 기대하고 왔는데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까? 두드리면 기회가 열리니 가끔 학생복지처에 들러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참여 의지와 관심 부족이 아니었을까요? 학교에서 참여할 것이냐고 묻는 전화나 게시판에 붙어있는 서류들을 늘 무심코 지나갔다면, 이것은 우리가 누릴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미래의 나를 생각하며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져 보세요.

만드는 사람들. 지도 : 성원경 교수님  
 학생 : 3학년 김진희  
 2학년 김민아 이다영 이정현  
 1학년 박지원 여은솔